



‘커브의 달인’ 저스틴 저마노



KS 3차전서 삼성 저마노-SK 송은범 선발 대결

‘커브의 달인’ 저스틴 저마노(29·삼성 라이온즈)와 ‘묵직한 정통파’ 송은범(27·SK 와이번스)이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선발 맞대결을 벌인다.

삼성과 SK는 28일 오후 6시 인천 문학구장에서 펼쳐지는 한국시리즈 3차전 선발로 저마노와 송은범이 각각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7전4승제 한국시리즈에서 1·2차전을 모두 승리한 삼성이지만 저력의 SK에 3차전을 내줄 경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SK는 안방에서 열리는 3차전이 사실상 마지막 반격 기회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먼저 3연패한 뒤 뒤집기에 성공한 팀은 아직 없다.

3차전 선발 중책을 맡은 두 투수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저마노는 지난 8월 무릎 통증으로 퇴출된 일본인 투수 카도쿠라 켄의 대체 선수로 삼성에 합류한 메이저 리그 출신의 오른팔 투수다.

결정 구인 ‘명품 커브’ 뿐만 아니라 체인지업과 싱킹 패스트볼 등을 적절히 구사하며 타자들을 현혹한다. 특히 저마노는 뛰어난 제구력을 보유하고 있어 타자들이 공략하기가 쉽지 않다.

저마노는 올 시즌 8경기에 선발로 나와 5승1패(평균자책점 2.78)를 기록했다.

SK를 상대로는 2경기에 선발 등판해 1승(평균자책점 1.50)을 거뒀다.

상대 투수가 많지 않아 검증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120이닝을 던지는 동안 삼진 11개를 잡아낸 점은 충분히 인상적이다.

저마노와 선발 맞대결을 벌이는 SK의 송은범은 이만수 감독대행이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가장 신뢰하는 선발 투수다. 송은범은 애초 2차전 선발로 예상됐지만 하루 더 휴식을 주고자 윤희상과 선발 순서가 바뀌었다.

송은범은 올해 정규리그에서는 팔꿈치 통증 탓에 주로 불펜에서 활약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선발로 복귀했다.

정규시즌 성적은 8승8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43으로 특출하지 않지만 ‘가을 사나이’답게 포스트 시즌에서는 강했다.

송은범은 KIA 타이거즈와의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6이닝 동안 5타자 2실점으로 호투하며 1차전 패배로 사기가 꺾였던 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롯데 자이언츠와의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는 솔한 위기를 투지와 끈력으로 극복하며 6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아 한국시리즈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송은범은 올해를 포괄해 포스트 시즌 통산 11경기에서 2승 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1.52이라는 뛰어난 기록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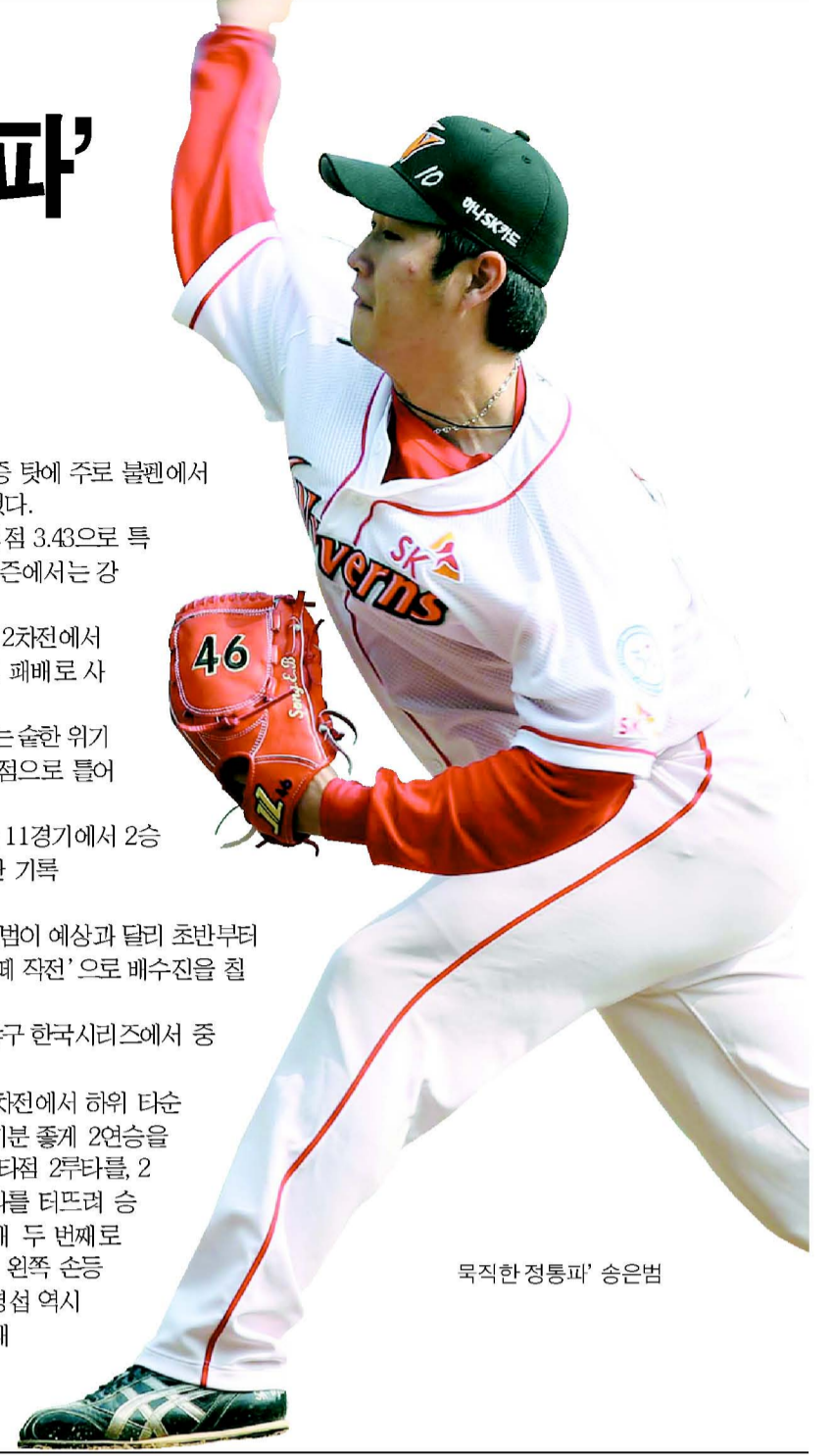
하지만 2연패를 당한 SK는 3차전에서 송은범이 예상과 달리 초반부터 흔들리던데 임지갑이 불펜을 풀가동하는 ‘별뿔 작전’으로 배수진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 라이온즈의 하위 타선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중심 타선 못지않은 해결 능력을 보이고 있다.

삼성은 SK 와이번스와의 한국시리즈 1·2차전에서 하위 타선에 포진한 타자들이 결승타를 때린 덕분에 기분 좋게 2연승을 내달렸다. 1차전에서는 7번 타자 신명철이 2타점 2루타를, 2차전에서는 9번 배영섭이 2타점 중전 적시타를 터뜨려 승리를 이끌었다.

프로 11년차인 신명철은 생애 두 번째로 출전한 한국시리즈에서 짜릿한 손맛을 봤고 왼쪽 손등을 다쳐 이번 시리즈 합류가 불투명했던 배영섭 역시 첫 출전에서 영양가 만점짜리 안타를 때려내고 승리의 수훈감이 됐다.

연합뉴스



묵직한 정통파 송은범

한남대 축구부 U리그 챔피언십 4강 진출

8강전서 전통의 강호 고려대 3-2로 제압

한남대학교 축구부는 27일 경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1 U리그 챔피언십’ 8강전에서 강호 고려대를 3-2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앞서 24일 열린 16강전에서는 지난 대회 우승팀 연세대를 1-0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한남대는 U리그에 참가한 70여 개의 대학 중에서 18승 3무의 유일한 무패 전적으로 전무후무한 대학축구의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대학축구가 평준화된 상황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기록이라는 평가다. 전반 시작부터 강하게 고려대를 몰아붙인 한남대는 세트 플레이를 통한 미드필더 김병진(22·생활체육학과 3학년)의 선제골과 상대

수비수의 실수를 역습으로 이어 얻은 페널티킥을 통한 윤종진(23·생활체육학과 4년)의 두 번째 골로 경기 흐름을 잡았다.

이어 2-0으로 앞선 상황에서 고려대에 1골을 허용했지만 다시 한 골을 넣어 3-1로 앞서며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초반에 들어서서 U 대회에서 득점 선수를 달리고 있는 주장 박정만이 부상을 무릅쓰고 출전했으나 다시 부상을 당해 아웃 당하고, 고려대의 거친 공격에 계속적으로 부상 선수가 속출한 가운데 끝까지 투혼을 보이며 1골만 추가 허용해 3-2로 경기를 마치며 승리로 이끌었다.

29일 낮 12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준결승전(4강전)에서 한남대는 지난 전국대학축구 선수권



대학 축구의 강호 연세대와 고려대를 잇따라 꺾은 한남대 축구부 선수들이 승리를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남대 제공

대회 우승팀인 아주대와 울산대의 승자와 맞붙는다.

이날 경기에 미드필더로 출전한 김병진은 “29일 준결승전에서 이기면 우리대학에서 결승전을 치르게 된다”라며 “선수 모두 결승에 진출해 흠뻑 땀을 흘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press@gglibo.com

임창용, 日 진출 첫 우승 도전

〈야쿠르트 스왈로스〉

내일 PS 개막



2011 일본프로 야구 황금왕을 가리는 포스트시즌이 29일 막을 올린다.

지난 3월 대진진 여파로 예년보다 2주가량 늦게 시즌을 시작한 일본프로야구는 센트럴리그가 지난 25일 정규리그를 마감했고 퍼시픽리그는 22일 최종 경기를 마쳤다.

올 포스트시즌은 센트럴리그에서 2년 연속 리그 정상에 오른 주니치 드래곤스와 2위 야쿠르트 스왈로스, 3위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가을 잔치에 초대받았다. 퍼시픽리그에서는 1위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니혼햄 파이터스, 세이부 라이온스가 진출했다.

일본에서 뛰는 우리나라 선수 중

에서는 야쿠르트의 ‘수호신’ 임창용만이 포스트시즌 무대를 밟게 됐다. 임창용 개인으로서도 일본 데뷔 첫 포스트시즌 무대다.

오릭스의 ‘거포’ 이승엽은 팀이 최종전에서 패하며 3위 자리를 세이부에 내주는 바람에 아쉽게 올 시즌 일정을 마감했다.

양리그는 플레이오프 시리즈 1, 2 스테이지를 통해 일본시리즈에 올라갈 팀을 가린다. 3전2승제의 1스태이지는 2위와 3위가 맞붙고, 6전4승제인 2스태이지는 리그 1위팀과 1스태이지 승리 팀끼리 격돌한다. 2스태이지에 선착한 정규리그 우승팀은 1승씩 어드밴티지를 안고 경기를 치른다. 플레이오프 시리즈 1스태이지는 29일 도쿄 메이저 리그구장에서 야쿠르트-요미우리,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니혼햄-세이부 경기가 열린다.

군, 군체육회, 군태권도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70여 개 팀 600여 명이 참가한다.

16개 시·군대형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초등부, 저학년·고학년부를 구분하고, 중·고등부와 대학·일반부는 일선도장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팀과 도장팀으로 나뉘어 열린다.

충남태권도협회가 주최하고 서천

충남도지사기 태권도 대회 28~30일 서천군민체육관

유주경 기자 willowind@gglibo.com

전북현대 2관왕 노린다

K리그 정규리그 1위 이어 AFC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전북 현대 모터스가 화끈한 공격 축구로 K리그 정규리그 1위를 확정 한 데 이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진출하자 팬들의 열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전북은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알 이티하드(사우디아라비아)와의 준결승 2차전에서 2대1로 승리했다.

19일 사우디아라비아 원정 1차전에서 3대2로 승리했던 전북은 1·2차전 합계 5대3으로 이겨 2006년 우승 이후 5년 만에 결승에 올라 패권 탈환을 노리게 됐다.

이날 경기에는 1만 4000여 명이 찾아 전북의 승리를 기원했다.

결승전은 다음달 5일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과 수원 삼성을 함께 2-1로 꺾은 알 사드(카타르)와의 단판 승부로 펼쳐진다. 또 이미 올해 K리그 챔피언스리그에 오른 전북은 K리그와 AFC 챔피언스리그 2관왕을 노린다.

정규시즌 내내 화끈한 공격력으로 1위를 달린 전북은 역대 K리그 경기당 평균 득점 기록을 새로 썼다.

29경기를 치르는 동안 모두 66골(평균 2.28골)을 터뜨렸다. 올 시즌 팀 득점 2위를 달리는 포항과 10골 차이로 압도했다. 전북은 남은 30라운드 한 경기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평균 2.2골이 돼 2009년 팀의 첫 정규리그 1위 당시 기록한 기존 최고 기록인 2.11골(28경기 59득점)을 뛰어넘는다.

연합뉴스

귀금속·교육·대선전문기업

Gold / Silver / Jewelry / Watch

월퍼스귀금속

예약상담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93-7
문의 | TEL. (042) 222-7681, 257-6152

대전 “시즌 마지막 경기 승리로 마무리”

30일 광주와 흥경기



대전시 시즌이 2011년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 필승을 다지고 있다.

대전시 시즌은 30일 오후 3시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FC와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30라운드 최종전을 갖는다.

지난 22일 전북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한 대전은 아쉽게 승리를 놓쳤지만 무실점으로 3연패의 고리를 끊었다.

대전은 2003년 이후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5승 3무를 기록, 올 시즌 마지막 경기인 광주전에서도 승리해 무패행진이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선수단은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며 올 시즌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 혼신을 바쳐를 기하고 있다.

전북전에서 스리백 수비를 사용하며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친 유상철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다시 포백 수비를 가동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은 주전 수비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하며 초반에 실점한 뒤 어려운 경기를 이어갔던 패인을 극복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 실점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중반 이후 공격 위주의 운영을 펼칠 전망이다.

승리 열쇠는 미드필더 김성준이다. 빠른 발로 측면 공격을 주도하던



대전시 시즌은 3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FC와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30라운드 흥경기를 펼친다. 사진은 지난 5월 대전과 광주의 경기 모습. 대전시 시즌 제공

한재용이 부상으로 결장하게 돼 김성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대전은 김성준의 패스와 위협적인 중거리슛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전은 올해 K리그에 입성한 광주와 지난 5월 처음 맞붙어 1-2로 패했다.

스피드와 기술을 갖춘 공격수 주앙와울로가 광주의 공격을 지휘한다. 올해 신인왕 유력 후보인 이승기도 위협적이다.

하지만 수비의 핵심인 유종현이 경고누적으로 결장해 수비의 빈틈이 생기기 때문이다.

유상철 감독은 “광주는 신생팀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강한 팀으로 상대하기 까다롭다”

“정신력으로는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는 만큼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해 유종의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유주경 기자 willowind@gglibo.com

현대 오일뱅크 K리그 2011 프로축구 경기 일정

대전 시티즌 VS 광주 FC

10월 30일(일) 15:00

장소 : 대전월드컵경기장

오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막

인천서 30일까지

전국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2011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2001년부터 열린 이번 대회는 16개 시·도에서 선수 및 인원 2만 3000여 명과 인천시민 3만 7000여 명 등 총 6만여 명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인들의 대규모 종합축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대전은 51개 종목 중 31개 정식종목, 4개 장애인종목, 2개 전시종목 등 총 37개 종목에 선수 530명과 인원 115명 등 총 645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충남은 정식종목 31개, 전시종목 1

개 등 총 32개 종목에 걸쳐 610여 명의 임원 및 선수가 참가한다.

대전·충남 선수단은 대회 첫 날인 28일 오후 5시 인천 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 선수단 입장식에서 기발한 아이디어와 대형조형물 등을 동원해 시·도 홍보전에 나선다. 8번째로 입장하는 대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임을 알리는 ‘비행질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이에 앞서 5번째로 입장하는 충남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인 ‘내포신도시’를 전국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종목별 경기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되며 과열 방지 차원에서 종합 시상 없이 종목별로 시상된다.

특히 내년 5월 열리는 차기대회를 유치한 대전은 6개월여 앞으로 다가

◆경기종목(51개 종목)

▲정식종목=검도, 게이트볼, 농구, 국악기공, 당구,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생활체조, 스킨스쿠버, 야구, 육상, 합기도, 인라인스케이팅, 풋살, 페러클라이밍, 족구, 테니스, 탁구, 낚시, 축구, 씨름, 태권, 승마, 궁도, 스쿼시, 그라운드골프, 사격, 축구(대학), 농구(대학), 태권도, 정구, 윈드서핑, 골프, 라켓볼, 국수도, 절인3종, 줄다리기, 등산, 자전거 등 41개 종목

▲장애인종목=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당구 등 6개 종목

▲전시종목=본밭(장애인), 우유, 파크골프(장애인), e스포츠경기 등 4개 종목